

英聯邦 브루나이軍의 참모총장인 Pehin Orang Kaya Mohammad 少將은 <Jane's Defense Weekly>誌와의 회견에서 브루나이軍이 전력증강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나이軍의 戰力증강

브루나이는 自國 보병에 장갑기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RVI(Renault Vehcles Industriel)社의 裝輪 APC(4×4) 24대를 경쟁입찰을 통해 채택하였다.

또한 항공병기로서 1990년대초에 적은 수의 제트훈련기가 도입될 것이다. 보조 地上공격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이 항공기는 현재 헬기만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반하여 주목할 만한 전력보강을 가져올 것이다.

General Dynamics社가 브루나이軍에 F-16을 판매하려 했으나, 브루나이 공군이 지나친 첨단장비로 판단함에 따라 좌절되었다.

Mohammad 참모총장은 브루나이軍이 현재 1990년대초에 취역할 4~5척의 해군용 遠洋哨戒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초계정은 바다에서 최소한 14일간의 작전능력을 갖는 1천톤급이 될 것이다.

영국은 英 해군 홍콩함대의 6백75톤 Peacock급 함정 5척중 2척인 Swallow號와 Swift號를 브루나이에 판매하려고 하나, 브루나이軍의 MTU 엔진에 대한 選好와 판매후 정비세트의 부족에 따라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Pehin Datu Indera Haji Damit 准將이 지휘하는 브루나이軍의 특수부대인 4천 50명의 강력한 무장부대는 육·해·공군으로 구성되었다.

육군은 약 2개 보병대대를 중심으로 3천3백8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투부대는 M16A1 소총과 小隊지원화기인 L7A1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간접화력지원은 각 대대가 8문씩 보유하고 있는 Royal Ordnance社의 L16 81밀리 박격포를 운용한다.

장갑정찰대는 16대의 Alvis Scorpion 輕전차를 비롯한 장갑전투차량으로 편성되었으며, Scorpion 경전차는 증강내역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증강될 것이다.

防空은 BAe社의 Rapier미사일 장비로 짜여져 있다. 12기의 발사대가 晝夜 전천후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Marconi Blindfire 레이더를 이용한다.

위기시에 브루나이軍은 이전에 현역으로 복무했던 요원으로 편성된 예비부대인 9백명의 Malay연대를 소집할 수 있다.

영국의 48 Gurkha 보병여단의 1개 연대가 브루나이에 주둔하고 있다. 위기발생시 이 부대의 브루나이軍에 대한 지원은 영국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브루나이 공군은 2백명으로 편성되며, Dato Seri Laila Kong Paw 중령이 지휘한다. 브루나이 국제공항에서 기동할 수 있는 병력규모지만, Berakas에 기지를 두고 있다.

제1 中距離 수송헬기부대는 10대의 Bell 212와 1대의 Bell 214헬기를 운용한다. 이 부대는 브루나이 육군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의무 후송, 수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제2 輕정찰/무장공격부대는 12.7밀리 기관포와 80밀리 SURA 로켓으로 무장된 5대의 MBB社 BO-105헬기를 운용하며, 공군으로부터 무장헬기 운용능력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공군은 기본훈련기로서 Siai Marchetti SF 260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한다. 조종초급과정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4대의 Bell 206 Jet Ranger헬기를 운용하는 작전전환부대에 배치된다.

空輸 및 공중전술구출부대는 공중전술구출, 자유낙하 강하 및 정글구조팀을 지원한다.

브루나이는 인구 23만 8천명에 37억 8천만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英聯邦의 한 나라이다. 브루나이는 自國 보병에 장갑기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RVI (Renault Vehicles Industriel) 社의 裝輪 APC (4×4) 24대를 경쟁입찰을 통해 채택하였다. 또한 항공병기로서 1990년대초에 적은 수의 제트훈련기가 도입될 것이다

또한 공군은 Boeing 727기 2기와 Gulfstream 111, Bell 206 Jet Ranger 및 Sikorsky S-76 각 1기로 구성된 VIP 비행편대를 유지하고 있다.

Mohammad Hamid 중령 지휘하의 4백70명의 해군은 해안초계와 육군 지원의 2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해안초계를 위해 3척의 Waspada급 쾌속공격정을 배치하였다. 이 함정들은 Waspada, Pejuang 및 Seteria로서 1978년과 79년에 발주되어 싱가포르 Vosper에서 건조되었다. 滿船시의 배수량은 2백6톤이며, 이 함정들은 42km내의 地上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2기의 Aerospatiale社 MM38 Exocet 對艦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Mohammad 참모총장은 브루나이군의 초수평선 사격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사일射程 확대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였다.

Oerlikon 30밀리 GCM-BO1砲를 장착한 Waspadas는 對空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서 운용된다. 1천9백20km의 射程과 함께 32kts의 속력을 갖춘 이 함정은 海洋초계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Vosper에서 건조된 3척의 Perwina급 해안초계정 - Perwina, Pemburu 및 Penyerang을 운용하며, 3정의 7.62밀리 기관총으로 무장된 3척의 Rotork급 하천초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軍 작전지원을 위해 Tentura Lant에는 2척의

Loadmaster 상륙정과 24척의 돌격艇이 배치되어 있다.

Setia Kawan에서의 브루나이와 영국군의 합동군사연습 기간동안 Mohammad 참모총장은, 『브루나이의 적은 人口와 이 지역 다른 나라의 인구를 비교해볼때 브루나이는 적은 군사력을 유지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대국과의 분쟁시 브루나이軍은 우방국 군대가 도착할때까지의 자체방위력을 보유할 것이다. 최근의 군사연습에서 영국은 假想敵에 대한 브루나이 방위에 해군과 육군을 지원하였다.

브루나이의 인구는 23만8천명이며, 이 가운데 20%가 中國系 민족이다. 인구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이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브루나이軍에 복무할수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교도가 아닌 중국계 사람들은 브루나이 원주민이 될수도 없고 브루나이군 복무에 참여할수도 없다고 한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 브루나이는 국내 총생산의 10%인 80억5천만 브루나이 달러(美貨 37억8천만달러)를 해마다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브루나이 방위에 있어 브루나이군의 역할은 국가외교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브루나이는 1984년에 6번째 ASEAN 회원국이 되었다. 브루나이는 英聯邦의 일원이며, 이슬람연맹기구의 적극적인 회원국이기도 하다.

보르네오섬의 북부해안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이웃국가들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나라들의 軍과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과 같은 다른 주요 국가의 군대도 빈번하게 브루나이를 방문하고 있다.*

<Jane's Defence Weekly 1988. 10. 15>